

'신행 365일' 내 삶의 스승

BBS 개국부터 매일 '5분 포교사'...사물보는 시각 달라져



심화·이기선

"성불하여 저 중생 모두 건지리"

우담발화가 피는 첫 새벽, 북두의 빛이 몇광년의 빛살을 무지개로 만드는 아침이다.

은동 우주가 환하게 되었다. 장엄법계다. 환호 법업이다. 원일인가. 부처되신 날이다. 필발과 나무에 깨달음의 등광(燈光)이 저 건너에 있는 갈승에도 밝게 비추고 있다. 이 원만하고 거룩한 금강보좌에 삼매(三昧)드신 오타마가 백호(百鶴)에서 각광(覺光)을 나누시다.

부처님 성도절. 부처되신 광명이 저 삼천대천세계 끝까지 빛을 발광하셨다.

6년의 긴 고행, 이것은 헌겁의 고행이다. 부처님은 과거인행시부터 다생겁의 보살행을 부단하게 정진하셨다.

본래 광명을 본시 무명으로 착각하고 사는 중생, 어디 삶의 길이 따로 있고 삶의 변칙한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중생, 사바 고해에서 괴락을 막지 못하고 표류하는 방랑자, 노도 있어버리고 뭇쪽은 찢기고 널판자 하나에 얽매어 발버둥치다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말도자(末度者), 이러한 중생을 새롭게

업식비랑에 선 중생

인식시키려고 다생겁의 수행정진으로 연기의 길을 열어보이신 부처님이 되신 날이 남달리 팔일이다. 중생은 세상을 오래 살면서 업식의 버란에서 멀고만 있다. 업식을 벗어나려는 일로향상(一路向上)이 없다. 업식을 제 삶의 밭이라고 생각한다. 업식은 육체의 정열을 활력케 하는 힘을 있어도 정신의 해탈은 법열을 풍수하지는 못한다. 업식을 전이세계로 전환시키는 법을 먹어야 한다. 하늘에 매이고 신에 부대끼고 창조에 절을 하면 인간은 예측된다. 하늘은 공무아(空無我)이

고 신은 자재관(自在觀)이며 창조는 연기법(緣起法)이다. 이것을 깨쳐야 한다.

그런데 중생은 다생겁동안 사만(四慢)에 잘 길들여져 이것을 귀중한 재산과 재물로 간직하려고 한다. 간직하

들어 고요해지고 명징되면 거거엔 빛살이 환하게 감싸고 있을 것이다. 이 빛살 비추인 감을 단결함에 건너야

발원성불은 우리 몫

한다. 보리수는 우뚝하게 서 있다. 우주의 처음 나무처럼 서 있는 광명대. 우리는 이 등대에 나아가서 빛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 도 이루지 아니하면 이 지리를 떠나지 않으리. 내 도 깨치면 저 중생 모두 건지리"

라는 부처님의 서계(誓戒)를 가슴에 아로새겨야 한다. 과거 인행은 근력이 되어 해인삼매에 드디어 마왕괴수가 8년간 군사를 이끌어 내리려 하였지만 부동지(不動地)에서 금강정좌하신 빛의 순수무구여. 우리는 부동지(不動地)를 공부해야 한다.

부처님의 깨침은 일체 중생의 불성 개발을 발원

하셨는데 우리는 망각의 늪가에 앉아서 사상(四相)의 그림자를 낚시질하고 있다. 마음에 송신증이 나면서도 아상(我相)의 대어를 낚아올리려고 망심의 띠발을 주물고 있다. 부질없는 업식회통을 불살라 버려라. 배화교 가삼형제들이 불방망이를 감가감에 버리듯이 우리도 망심의 낚시를, 아상의 띠발을 던져버려야 한다.

성도의 소식을 들으면 성불의 음신을 받아라. 성도가 부처님의 것이라면 발원성불이 우리의 몫이라고 각중(覺中)해야 한다.

우담발화가 피는 첫 새벽, 천하대지에 겨울의 햇살이 옮겨오는 새벽, 하얀 빛으로 목욕하고 경계의 살림을 사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내 마음깊숙히 우담발화의 향기와 가람빈가의 첫소리 암(庵)을 노래하여야 성도가 나의 성불이 될 것이다.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은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풀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발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총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영끌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 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글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남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추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결을 한결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승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

연기자라는 선임때문일까. 처음 만난 드라마 밖에서의 김용림씨(55)의 눈빛이며 손짓이며 무척 자연스럽고 생동감있게 느껴진 것은.

불교방송 '신행 365일'을 녹음하러 온 김용림씨는 이 프로그램 자신에게 불교공부를 시켜주는 스승이라고 첫 마디를 꺼냈다.

아침 7시55분부터 8시까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경진 한구절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비유를 들어 풀이해주는 '신행 365일'은 메시지가 있는 포교 프로그램임이 분명하기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무척 쓴다고 덧붙였다.

"한번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반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불교신자가 아니었는데 '신행~'의 내용이 너무 좋아 매일 듣다보니 절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용림씨 덕분에 불교신자가 됐다고 방긋레 웃더군요."

연기자인 만큼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 당연히 보람이 크지만 '신행 365일'에 대해 좋은 평을 들을 때마다 그는 불자로서 긍지를 느끼고 아울러 이 프로그램이 열어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삼 느낀다. '신행 365일'은 개국부터 불교방송 포교프로그램의

대표주자 중의 하나지만 개국부터 지금까지 진행자가 안바뀐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지금은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일주일치 녹음을 하지만 초창기에는 월요일에 녹음을 했었다.

"10시쯤 미리 나와 3층 방담에 들러 예절을 드린 후 17층 녹음실에 올라가곤 했어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하는 '신행 365일' 덕분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안하고 드라마 연기도 한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속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 탓에 목소리도 높게 만들어야 하는 탓일까. 드라마속보다 불교방송을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한결 감미롭고 잔잔하다.

김용림씨는 1961년 KBS 성우 4기로 연기생활을 시작했다.

한부의 연기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끼'는 일찌감치 발휘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동네아이들을 불러 모아 곧잘 화예회를 열곤 했었다. 중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재능을 키우던 그는 성우생활을 거쳐 65년 TBS TV 개국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본격 길을 걷게 된다. 그는 텔레비전생활과 함께

연극무대에서도 열심히 활동한다. 81년 연 동요연기자와 극단 「사조」를 창단하기도 했다.

김용림씨가 요즘 출연하는 드라마는 MBC 주말연속극 「여울목」, 여기에서 그는 차분하면서도 인내심 깊은 한국의 어머니 상을 연기하고 있다.

"전통적 어머니 연기'하면 단연 김용림을 꼽을 만큼 그의 어머니 연기는 독보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완고한 사 어머니, 억척스럽고 강인한 어머니, 무뎉죽하지만 속정깊은 어머니, 때로는 팔자 센 과부...

"후회합니다. 「여울목」, 「사랑과 야망」, 「그 여자」, 「산너머 저쪽」, 「여울목」 등등. 방영당시 시청률에 있어서 톱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들에서 한결 드라마 맛을 살려주었던

신문박의

텔런트 김용림



것이 그의 연기이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20대때부터 나이든 중년연이나 노역을 주로 맡아온 김용림에게는 비슷비슷한 배역이 지루한 일은 아니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똑같은 배역이란 없습니다. 씁쓸이도 외로운 감정이 성취나 취향이 다르듯 같은 어머니역이라도 똑같은 수는 없지요."

그는 대사 NG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사전 연습을 철저히 한다. 일단 역을 맡으면 세심하게 그 역할을 분석 연구한다. 몇 장면 없는 단역이라도 역을 어떻게 완벽하게 소화할 것인가에 공을 한다.

35년 연기자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이 연기자는 장거리 선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20대때부터 나이든 중년연이나 노역을 주로 맡아온 김용림에게는 비슷비슷한 배역이 지루한 일은 아니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똑같은 배역이란 없습니다. 씁쓸이도 외로운 감정이 성취나 취향이 다르듯 같은 어머니역이라도 똑같은 수는 없지요."

그는 대사 NG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사전 연습을 철저히 한다. 일단 역을 맡으면 세심하게 그 역할을 분석 연구한다. 몇 장면 없는 단역이라도 역을 어떻게 완벽하게 소화할 것인가에 공을 한다.

35년 연기자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이 연기자는 장거리 선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자의 길은 단거리가 아니지요. 장거리를 뛰는 선수마음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스타'라고 조명을 받을 수가 있지요. 스타가 되면 명예라든가 상이라든가 보상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명예나 돈이 먼저가 아니지요."

그러한 그의 눈에는 한 작품으로 금방 유명세를 타는 요즘 일부 젊은 연기자들의 조급한 연기관과 신데렐라 풍도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오래 연기생활을 하니까 삶증이 나지 않는다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 천직이라 생각합니다. 연기란 것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으니 묘하지요."

남편도 같은 길을 걷는 연기자이고

"허물 용서할 수 있는 이해심과 여유가 나이 들면서 생겨요"

아들 역시 연기자의 대를 잇고 있는 인연 또한 생각할수록 기쁘다.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김용림씨는 언젠가 '신행 365일'에서 들려주었다며 「법구경」중 위의 구절을 나지막이 들려준다. 오심 중반에 접어든 요즘 다시금 가슴에 담고 사는 경구리다.

하루하루 주름이 잡혀가는 외모, 젊음을 잃고 나이먹어 가는 것에 그 자신 한 때 몹시 초조했었다. 보통사람들도 그러할텐데 허물며 연기자, 더구나 여자 연기자에게 있어 스러져가는 외모와 잃어가는 젊음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그러나 김용림씨는 나이드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다.

젊음이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젊었을 때 갖지 못했던 이해심과 여유가 나이드니까 생기더라는 것이다.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 같은 것이 마음에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물론 '신행365일'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의문이지요."

그는 인간으로서, 연기자로서 중요한 고비였던 오십대 초반에 '신행 365일'과 인연 맺은 것을 부처님 가르침 돌리며 거듭 고마워했다.

(이경숙 기자)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 야간, 전문과정 ●교과 최고의 강사진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00명, 통신과정 00명 }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과목: 주 5일 수업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람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776-7156, 773-9171, 754-1613 FAX: 756-7258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95학년도 직장인을 위한 불교상좌(2년 과정)

동산 百日法門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 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스님의 백일법문(上,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6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 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정승석(동국대학교수), 권태준(동국대학교수), 권기종(동국대학교수), 한보람스님(동국대학교수), 김영태(동국대학교수),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 오형근(동국대학원장), 홍범스님(승가대학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종사상, 포교방법론, 밀교사상,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홍윤식(동국대학교수), 한정실(불교교과위원장), 정병호(동국대학교수), 암도스님(전포교원장), 서윤진(동국대학교수), 정락스님(포교위원장), 김용표(동국대학교수), 성본스님(승가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불교를 전공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영합선신 3매	1995년 1월 31일~ 2월 8일(교과계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근거가 어려운 자만 가능
통신반(30명)	신행하고자 하는 자		2월 8일(교과계정)		충무원 불교회관 1층	

4. 개시일: 1995년 2월 11일(토) 오후 6시(충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732-1206, 1207, FAX:732-1207) ▶대우: 삼영불교서점(425-4097)
▶서울: 보림각(조계사앞): (733-0333) ▶대전: 보문서점(257-0161)
▶부산: 불서보급사(246-4321) ▶광주: 금강불교백화점(671-0451)

6. 원서접수처: 본대학 사무국(110-170, 서울 중로구 건지동 45번지 충무원 1층)
*특전사항: 상기과정을 졸업한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사호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